

지자체들 “농·축산 폭염피해 막아라”

장흥군 상황실 가동 농작물 병해충 예방 진도군 가뭄 비상대책 수립 단계별 시행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각 지자체들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농작물 병해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전공공하고 있다. 또 대부분 농민들이 70대 이상 고령자로, 이들이 폭염 속에 농사일을 하다가 열사병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잇따르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은 폭염이 지속되자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8월 말까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폭염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폭염대책 상황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내 농작물의 폭염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기상특보와 농작물 관리 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전파하고 또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폭염과 함께 시작된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수지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농업용수 공급 대책도 마련 도열병 등 고온으로 인

한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활동에 나서 병해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방제하기로 했다.

유영철 친환경농축산과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온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한낮에는 농작업을 피하는 등 농업인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동진 진도군수, 읍·면장 및 재해 주무담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최근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가뭄 현상을 보임에 따라 가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읍·면 농작물 가뭄비상대책 수립, 현장 상황실 운영, 가뭄 지역별 전담 공무원 지정배치, 폭염 대비 가축사양관리 요령 홍보,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가뭄대책 추진, 소방차 및 살수차 등 급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

했다. 특히 군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작물별 가뭄 발생 대처사항을 알리고 관정 및 양수 및 지원 장비 점검, 관수 시설 조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가뭄이 더욱 심화되면 비상 대책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농업용 관정, 양수기, 송수호스, 급수차 등 양수장비를 동원해 다단계 양수작업 등 가뭄지역 농작물 급수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폭염 피해 예방 대책회의를 가진 이동진 진도군수, 읍·면장 및 재해 주무담당 관계자 등이 오후 피해 우려 지역을 방문해 농민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진도군 제공)

아울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 설치가 되지 않은 중형관정 8개소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 중형 관정을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진도군은 현재 농업용 저수지 133개소, 양수장 30개소를 비롯 양수기 4282대, 관정 342개소, 스프링물 2만18500대 등의 가뭄 대책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전선절도 꼼짝마!

영암경찰서-한전영암지사 ‘예방 안전망’ MOU

영암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한전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전선절도 예방시스템’을 구축, 전선절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확보했다.

12일 영암경찰서와 한전 영암지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선절도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인지 기능이 없어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선절도범이 전선을 자르고 5초 뒤에 ‘전선절도 예방시스템’을 통해 한전과

경찰서에 자동 통보됨으로써 절도범의 현장 검거가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영암경찰서에 근무하는 김경준 경위의 노고가 숨어 있었다.

김 경위는 한전 영암지사가 전국 최초로 ‘전선절도예방시스템’을 개발, 내부적으로 시범운영 중인 것을 알게 된 후 한전 관계자에게 경찰과의 업무공조를 제안하는 등 MOU 체결을 물밑에서 추진해

이를 성사시켰다.

이와 관련 김영달 영암경찰서장은 “일선 서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경찰관의 작은 아이들 하나가 전국 경찰의 범외 대우를 크게 증대했다”면서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국가 기간 시설의 전선절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영암지역 전선절도 피해액만 5000여만원으로 전국적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피서철 서남해 뱃길 이용객 크게 증가

작년보다 14%나 늘어

올여름 피서철 전남 서남해 뱃길 이용객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18일간 하계 특별수송 기간 목포항을 중심으로 제주, 신안, 진도 등지의 여객선, 유·도선 이용객은 39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4만7065명 늘어났다.

이는 특별수송기간 남부지역 기상이 대체로 양호한 데다가 중부해역이 집중되면서 서남해 도서지역으로 피서객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용객이 많은 항로는 목포~제주 7만1614명(5% 증가), 목포~흑산도(홍도) 7만 4928명(27% 증가), 목포~임대도 4만4154명(7% 증가), 목포~외달도 2만4162명(29% 증가)으로 나타났다.

목포·해남 우수영에서 제주를 가 는 이용객과 외달도, 홍도, 비금도 등 해수욕장, 갯벌(해상) 체험장 등 지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는 이용객도 많았다고 해경은 분석했다.

김문홍 서장은 “특별수송 기간 피서객 안전을 위해 선착장 14개소에 경찰관 등 61명, 여객선 등 주요 항로 상에 경비함정 7척을 집중 배치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633@



유례없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말복인 12일 강진군 성전면 복지회관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노인들이 짜장면으로 복달임을 하고 있다. 강진군청특회(회장 이형철)가 마련한 무료급식봉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매달 읍면을 돌아가며 그동안 800여 명의 독거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능기부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암·장흥 목재문화체험장 전국 우수사례 선정

국비 3억원 지원 받아

전남도가 목공예제품 개발과 목재문화체험 및 홍보 등을 위해 영암 구립한옥마을과 장흥 우드랜드에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이 2013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3억원을 지원받는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추진한 경제산업, 보건복지, 관광문화분야 등 59개 국고보조사업을 서류와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 전남의 목재 관련 2건 등 4건을 비롯해 전

국 21건을 선정했다. 영암에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은 구립한옥마을과 왕인박사 유적지를 연계해 한옥을 주제로 설정한 한옥구조물을 조립했다.

역사인물(왕인박사) 조각상 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가 담긴 목재체험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왕인박사 유적지를 많이 찾고 있는 일본 방문객을 상대로 목재문화체험관의 수익사업 운영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흥 우드랜드 인근에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은 장흥에서 목재 전문가

를 채용해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과 숲유치원을 운영하고 목공예 토요경매 등을 통해 지난해만 6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이로 인해 15억원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약 200명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박희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좋은 사례”라며 “광양, 구례, 고흥, 화순 지역에 조성중인 목재문화체험장도 특화된 체험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시 20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목포시는 2014년 본예산 편성전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4 목포시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 운영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예산 관련 의견 수렴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공모내용은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1건당 총 2억원 이내 사업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참

여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 홈페이지(www.mokpo.go.kr) 20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대상으로 해당 실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 시민 9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원도심(19일)과 신도심 권역(21일)으로 구분해 2차례에 걸쳐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시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엄마·아빠 나라말 경연

전남다문화가족지원회거점센터는 ‘나의 꿈’이라는 작은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엄마·아빠 나라말 경연대회’를 13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연대회는 올해 3회째로 전남도내 20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 재학생 및 중도 입국 자녀 23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는 엄마 모국어별로 일본 11명, 중국 7명,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각 1명씩이고 아빠 모국어별로는 캄보디아와 도미니카의 중도 입국자 2명이다.

전남도는 이번 경연 수상자에게 상장과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장흥수기자 bungy@kwangju.co.kr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명랑 해결단

그들을 위한
명쾌한 정답 프로그램!

이운석 이유리 서경석

매주 월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